

# 1. 왜 처음부터 러시아 인들은 민간 여객기 KAL 007 기를 격추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는가? 왜 그들은 승객들을 오늘날까지 풀어주지 않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1983년 냉전 상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믿어지는 평가에서 나온다:

1. 레이건 대통령은 이미 공개적으로 소비에트 연방을 "악의 왕국"이라 혹평한 바 있다.



2. 1979년 12월 12일, NATO 사무총장인 조세프 런스는 소련의 대륙간 탄도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Pershing II 중거리 탄도(유도) 탄과 육상 발사 순항 미사일을 - 모스크바에서 단 6분 거리의- 유럽에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3. 유리 안드로포프는 NATO의 미사일 배치를 미리 막는 방편으로 소비에트 연방을 선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 보여지도록 노력했다.



4. 만약 소련이 승객들을 곧바로 풀어주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유죄를 인정하게 되는 셈이 되고, 이는 그들의 "평화를 사랑하는" 이미지에 큰 손상이 될 수도 있었다. 드러나는 바와 같이, 그들의 노력은 소용이 없었다. 미국은 유엔에서 "목표물은 파괴되었다"라는 보고가 담긴 Su-15 조종사인 겐나디 오시포비치의 테이프를 틀었다. 그래서 NATO는 1983년 11월에 Pershing II 미사일을 배치하게 된다. 이는 고르바초프가 바르샤바 조약 해체에 동의할 때까지 유럽에 배치되어 있었다. (1987년 12월, 레이건과 고르바초프는 처음으로 모든 종류의 중거리 미사일을 없앤다는 조약을 체결했다).
5. 1991년 8월 고르바초프에 대한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자, 푸고 장군과 마살 악흐로메예브를 포함한, 15명의 음모자들은 자살을 했다. 반면, 음모자인 마살 바레니코프와 KGB 수뇌, 블라디미르 크리우크코프는 고르바초프에 의해 감옥에 수감되었으나 곧 풀려났다. 바레니코프는 군

총사령관이었고 코리우크코프는 격추 당시 KGB의 수석 중역회의 수뇌였다. 이들 두명은 아주 국외 배타적이고, 반미적이며, 핵무기 대결 지향적인 소련군을 대표하고 있었다. 이들은 처음부터 KAL 007 기은폐를 주도했었다. (바레니코프는 9월1일 첫번째 군사 심문을 주도하고 피해를 억제하기 위해 사할린에 도착하였다. 코리우크코프는 KGB의 중역 관리였으며 비행기가 격추된 후 바로 모스크바 루비안카 감옥에서 하원 의원 래리 맥도날드를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있었다.) 그들이 풀려났다는 것은 그들이 계속 권력을 유지했음을 반영한다. 코리우크코프는 여전히 생존하고 있으며,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개인적인 친구로 순회 강연(!) 중이다. 그리고 바레니코프는 현재 러시아 국회 보훈 위원회 의장이다. 이 날까지, 그들은 그 문제를 감추는 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1999년 피터 빈센트 프라이가 프레스저 출판사를 통해 발행한 책, War Scare: Russia and America on the Nuclear Brink 은 1993년 10월 보리스 엘친에 대항한 쿠데타 동안 그들이 얼마나 활동적이었는지와 어떻게 계속 생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사실 러시아의 통상적인 힘이 오늘날 얼마나 약한가를 인지하고 있음에 따라 훨씬 더 위험한 존재들이다. 이는 그들에게 핵 솔루션이라는 선택만을 허락하게 될 뿐이다.

6. 러시아는 KAL 007 기의 승객들과 승무원들을 풀어주게 되면 미국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고 이는 현재 러시아가 받고있는 미국의 원조를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 할 수도 있다.
7. 마지막으로, 만약 소련이 래리 맥도날드를 잡기위해 KAL 007기를 격추시켰거나 (몇몇은 그렇게 믿는다), 혹은 그들이 의도치 않게 받게 된 보상이 너무 커서 되돌려 주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풀어준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이 승객들을 붙잡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기에, 그들은 승객들을 절대로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